



오후 4시 뜨거운 태양 아래서의 경기

영상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 두 선수 경기. 더위에 강한 태국선수가 유리하도록 주최측에서 경기 시간을 오후 4시로 정했을 가능성이 있음.